

일제강점기 주택개량운동에 나타난 문화주택의 의미

A Study on the Meaning of Cultural Residence in the 1910~1945

안 성 호*
Ahn, Sung 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Cultural Residence(Munhwa Residence)', which is the most popular keyword in the Korean modernization of housing. In the 1920s, Cultural Residence means a Western Style Housing mainly American Bungalow Style Residence. In the 1930s, the meaning of 'Cultural Residence' shifts to the Japanese modern Housing having central corridor with a western style reception room. In spite of changing of its plan type, the word of Cultural Residence holds the meaning of a Western Style Residence mainly in its appearance, materials and structural system.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한국근대주거사 혹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주택개량운동을 이야기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의 하나는 문화주택이다. 대개 1920년대 초 소위 大正 문화주의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문화라는 용어는 근대화와 서구화의 상징어이었다. 근대식 주택 혹은 서구식 주택도 흔히 문화주택이라고 불리었고 나아가서는 전통주택과 다른 것이면 모두 문화주택이라 불릴 정도로) 유행한 용어이었다. 해방 후 1960년대까지도 일반에게 문화주택이라는 말은 낯선 것이 아니었으니 한국주거의 근대화과정에서 가장 유행한 단어가 문화주택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주택개량운동이 지향했던 주택형이 문화주택이라는 단어로 대표될 수 있다면, 우리는 문화주택이라는 용어의 분석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주택개량운동의 성격에 접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주택개량운동을 다룬 논문들이 대부분 문화주택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형을 일컫는 용어이었는지 밝힌 연구는 아직 드물다.)

이 연구는 한국근대주거사의 키워드의 하나인 문화주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평면적 특성을 가지는 주택을 가리키는 용어이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주택개량운동의 성격과 의미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주택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우선 『朝鮮と建築』을 들 수 있다. 1922년 창간되었기에 강점 前半期の 동향을 알 수 없으며 조선건축회의 기관지라는 한계가 있으나 모두 124채의 실물주택과 함께 주택개선에 관한 적지 않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어 일제강점기

* 정희원, (주)시반건축사사무소, 공학박사

1) 朴吉龍, 住宅建築의 畸形的 動向-生活을 爲함이나? 賣買를 爲함이나?, 『朝光』, 1935. 11., 197-201쪽 참조

2) 김란기·윤도근,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군정기 주택사정 고찰(I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7. 12., 87쪽에서 일제강점기의 주거유산을 이야기하면서 문화주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고찰은 아니다.

한반도의 주택동향을 파악하기에 유용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1920년대 이후 한반도는 생활개선운동, 주택개량운동의 열기가 높았고 이러한 사회문화운동의 주무대는 3·1운동 이후 간행된 한글 신문과 잡지들이었다. 이들 신문과 잡지에는 한국인 건축가들의 주택개량운동에 관한 글들이 다수 실려 있어 당시의 주택개량운동과 주택상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사료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사람은 박길룡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그는 주택개량에 많은 관심을 보여 적지 않은 글과 도면을 남기고 있다.³⁾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일제강점기의 문헌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주택개량운동에서 나타난 문화주택의 의미와 변화를 알아보려는 주거사적 연구이다.

한 시대의 주택상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의 평면, 구조와 재료, 의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생활에 대한 연구가 어우러져야 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문화주택의 평면형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평면이 주택의 모든 생활과 움직임을 담고 있을 뿐

3) 박길룡의 주택개량에 관한 글은 우리 住家改良에 대한 나의 考察, 조선일보, 1926. 11. 9-10
 流行性的의 所謂 文化住宅, 조선일보, 1930. 9. 19-22
 文化式別莊, 동아일보, 1932. 7.
 廚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2. 8. 8 - 14
 在來式 住家改善에 對하여, 자비출판, 1933
 建築으로 본 朝鮮, 조선일보, 1933. 5. 9-10
 朝鮮住宅을 어떻게 改良할까, 신동아, 1935. 8.
 住宅建築의 畸形的 動向-生活을 爲함이나? 賣買를 爲함이나?, 『朝光』 1935. 11
 새살림의 부엌은 이렇게 했으면, 여성, 1936. 1.
 住宅改良의 一案, 신동아, 1936. 6.
 在來式 住家改善에 對하여, 以文堂, 1937
 朝鮮式 住宅改善, 『朝鮮と建築』, 제16집 8호
 生活改善私案, 동아일보, 1938. 1. 1.
 건축가의 입장에서-온돌만은 절대 유지합시다, 동아일보, 1939. 1. 6.
 在來溫突의 構造, 『朝鮮と建築』, 제19집 3호
 朝鮮住宅雜感, 『朝鮮と建築』, 제20집 4호
 時局と建築計劃に就いて, 『朝鮮と建築』, 제21집 1호
 少額收入者住宅試案(연대미상) 등이 있다.
 그 외 최순애, 박길룡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1., 우동선, 과학운동과의 관련으로 본 박길룡의 주택개량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1. 2.참조.

아니라 유형을 구성하는 기본틀이 되기 때문에 주택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평면이 가장 유용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평면형을 제시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주택개량안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주택개량운동의 전개 일반에 대하여는 기존 논문에서 다루어졌으므로⁴⁾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다루지 않았다.

II. 문화주의와 주택개량운동

1. 문화주의의 유행

191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소위 '大正데모크라시'의 시대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일본 국가독점자본주의는 활황을 맞고 있었고 서구식 교육을 받은 도시중산층은 경제적 활황에 힘입어 '大正文化主義'라는 시대적 사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사조는 다분히 서구지향적인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운동이었으며 일본 사회 전역에 교양주의, 문화주의, 세계주의라 할 수 있는 일련의 휴머니즘 운동을 발생시키고 있었다.⁵⁾

일본에서 문화주의는 곧 주택개량, 생활개선운동으로 이어졌다. 중산지식인들과 여성들이 이러한 운동의 주역이었으며 그 무대는 민주화의 결과로 다양하게 등장한 언론매체이었다. 어린이와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단란의 추구, 주택설비의

4) 김정아, 일제시대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2., 김선재, 한국근대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문홍길, 개화기 이후 한국전래주거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2., 이영주·이영호, 개화기 이후 한국전래주택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12집, 1986. 12., 이영호, 개화기 이후 한국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8. 10. 임창복, 일제시대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주택개량운동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1. 10. 등 참조
 5) 일본에서의 문화주의는 19세기말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의 비판에 직면하여 새로이 등장한 신칸트학파의 철학과 헤겔과 로망 롤랑의 관념론적 사상을 기초로 한다. 문화주의는 당시 특히 예술론에 큰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한국의 문화주의 예술론의 모체가 된다.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35-38쪽 참조

개량과 함께 진행된 일본에서의 주택개량운동은 결국 서구식의 중류주택으로 모아지는 것이었다.⁶⁾

한반도도 이러한 문화주의 열풍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1920년대 초 지식인들에 의해서 유입되기 시작한 문화주의는 곧 일제의 기만적인 식민지 정책과 결합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근대화의 원리로 강조되었다. 문화민족, 문화생활, 문화주택, 문화조선 등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는 구식을 대신한 과학적 합리성과 편리성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나아가 문화혁명, 문화범비 등 새롭게 개량된 것이나 서구식을 본뜬 것이면 모두 문화라는 접두어가 붙는 식이었다.

당시의 문화주의란 근대적 합리성과 함께 자아의 자유로운 향상 발전을 의미하는 인격주의, 낭만적 인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⁷⁾ 문화주의를 인격주의로 이해한 한반도의 지식인층은 주거와 일상의 개조를 국가의 문화를 고양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곧 신생활운동과 주택개량운동을 펼쳐나간다. 그 주역은 중산지식인층과 여성들이었으며 강한 서구화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도 일본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러한 낭만적 문화주의의 유행은 한반도의 사회문화운동이 국가적 모순이나 계급적 갈등까지 개인의 품성이나 인격의 범주에서 그 해결점을 찾게끔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사회적 모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문화주의는 처음부터 사회진화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강한 서구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2. 문화주택의 유행

문화주택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

용되기 시작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일본에서 문화주택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1922년 평화기념 동경박람회에서 ‘문화촌’이라 하여 14채의 실물주택을 전시하고 난 후부터라고 하니⁸⁾ 한반도에서의 사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淺川伯教가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주택상을 논하면서 1920년대 이후를 ‘문화주택시대’라고 구분⁹⁾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대체로 1920년대 초 한반도에서도 문화주택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하겠다.

‘문화’라는 접두어가 붙는 단어의 용법이 그러하였듯이 문화주택은 곧 근대주택 혹은 서구주택과 동의어이었다. 1920년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근대적 외관과 설비를 갖추었던 조선은행사택의 설계자인 小野二郎이 조선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문화주택’을 계획하려면 방한주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¹⁰⁾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의 주택 변화를 정리하고 있는 笹慶一이 1916년부터 1923년까지의 한국인의 洋式 주택을 가리켜 “이 기간의 마지막에는 소위 ‘문화주택’적인 경향이 나타남과 동시에 이것 또한 그늘 속에 숨어 가려지게 되었다”¹¹⁾라고 적고 있는 것으로

8) 이 때 문화주택이라 불린 실물주택은 당시 일본을 몰아치고 있던 주택개량운동과 주택서구화의 전위로서 서구식의 거실을 주택의 중앙 둔 소위 거실중심형의 주택들이었다. 분리파건축회 소속의 젊은 건축가들이 구습을 물리치고 문화적이고 간소한 생활을 영위할 것을 목표로 설계한 극히 서구지향적인 주택이었다. 扇田新 外 9人, 『新建築學大系-7, 住居論』, 彰國社, 1987. 33-34쪽과 木村德國, 『大正から昭和へ(太田博太郎 編, 『住宅近代史』, 雄山閣, 1969), 137-140쪽 참조.

9) 淺川伯教, 『建築に對する側面觀』, 『朝鮮と建築』, 제11집 8호, 2-3쪽

10) 小野二郎, 『朝鮮に於ける住宅建築の改造』, 『朝鮮と建築』, 제6집 1호, 27-31쪽. 조선은행사택은 보강블럭조에 아스팔트방수와 온수난방설비를 갖춘 화양절충식 속복도형의 주택으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근대주택이었다. 『朝鮮と建築』, 제6집 5호, 29쪽 참조

11) 笹慶一, 『朝鮮に於ける住宅の變遷』, 『朝鮮』, 1938. 2., 108쪽. 笹慶一은 동경제대 건축과 출신으로 총독부 관방회 계과의 技師를 거쳐 조선건축회의 회장을 역임한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일본인 건축가이다.

6) 木村德國, 『大正時代の住宅改良と居間中心形住宅様式の成立』,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18, 1958. 5. 115-120쪽
7) 문화주의는 인본주의, 인격주의로 각 개인의 자아를 확충하고 순화하여 자발 창조의 경지에 입하여 인격가치의 실현에 노력함은 드대여 문화가치의 생산창조를 독하여 문화가치의 향상발전을 수반하게 하는 것이외다. 東芸, 『문화주의란 무엇?』, 『共榮』, 1921. 8. 김진승, 같은 책, 36쪽에서 개인용

보아도 문화주택이란 근대적 설비를 갖춘 서구화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문화주택이라는 용어는 전통주택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이 붙는 식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朴吉龍이 1930년 당시 문화주택의 형세를 구미식의 맹종, 일본식의 가미, 재래식과 서양의 혼합, 재래형식의 고수 등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¹²⁾ 사실상 새로 건설되는 모든 주택이 문화주택이라고 불리는 지경이었다. 1930년대 건축가들의 주택개량안도 흔히 문화주택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서울을 중심으로 등장한 도시형 한옥도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¹³⁾ 가히 유행성의 문화주택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도 다르지 않아, 조금이라도 서구적이거나 근대적 성격을 가진 주택이면 어느 것이나 문화주택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심지어는 값싼 아파트조차 문화아파트로 불러 끝내는 문화라는 말이 붙으면 값싸고 저급이라는 식이 되기도 하였다.¹⁴⁾

Ⅲ. 주택개량운동의 전개와 문화주택

1. 1920년대 방갈로식 주택개량안

1920년대 초 문자보급을 통하여 압박받는 민중에게 민족혼을 심어주고자 하는 농촌운동에서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사회문화운동은 곧 조선민족의 일상을 문화적으로 개조하려는 신생활운동으로 이어진다. YMCA, YWCA, 천도교 등 종교단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의 주도 아래

신생활운동은 의식주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통주택과 주생활의 불합리한 점을 개량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생활개선논의와 전통주택의 개량논의가 신문과 잡지를 주무대로 활발하게 전개된다.

1921년 朴達成¹⁵⁾에 의해서 언급되기 시작한 주택개량논의는 1920년대 초반 주로 동아일보를 통해 진행되었는데,¹⁶⁾ 이것은 주택의 설비와 위생에 대한 개량뿐만 아니라 동선처리, 부엌이나 식당의 개선 등에서부터 양육의 건설주장¹⁷⁾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된 것이었다.

1920년대의 주택개량논의는 지식인층과 여성에 의하여 주도되고 주택설비와 위생의 개량에 논의가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한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¹⁸⁾ 그 지향점은 주택설비의 개량과 서구식 주택으로 모아지는 것이었다.¹⁹⁾

이러한 1920년대의 주택개량운동에서 가장 주목할 이는 金惟邦이다.

1923년 김유방은 ‘문화생활과 주택’이라는 제목으로 『開闢』지에 3회에 걸쳐 문화생활에 맞는 이상적인 주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재래생활의 短所를 제거하고 구미인의 생활의 長所를 취하여 새로운 생활의 배경을 지어야 함을 주장하면서²⁰⁾ 서구식의 주택 중 우리의 현실에 가

12) 朴吉龍, 流行性的의 所謂 文化住宅, 조선일보, 1930. 9. (최순애, 박길룡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81, 93-94쪽)

13) 朴吉龍, 住宅建築의 畸形的 動向-生活을 爲함이나? 賣買를 爲함이나?

14) 大熊喜邦은 『집을 살기 좋게 하는 법』(문화생활연구회, 1927)에서 “요즈음 유행하는 집, 소위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능률과 실리일변도에 치우쳐 취미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집”이라고 당시의 문화주택을 비판하고 있다. 扇田新 外 9人, 같은 책, 37쪽에서 요약 재인용

15) 朴達成, 新年改良의 第一着으로 朝鮮의 衣食住를 擧하노라, 『開闢』 제7호

16) 洪錫厚, 『緊急한 衛生問題』, 동아일보, 1921년 4월 3일자. 李顯雨, 住宅은 如何히 改良할까, 동아일보, 1923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1923년 1월 1일자 鄭盧植, 동아일보, 1923년 1월 1일자 고원훈의 기사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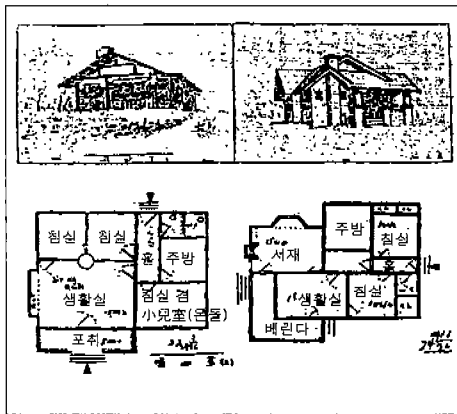
17) 金龍培, 家庭改良에 關한 意見, 동아일보, 1927년 1월 5일자. 그는 조선가옥은 불편하므로 양육을 건설할 것을 주장함과 함께 조선집을 그대로 지을 때는 행랑방을 없애고 부엌을 개량하고 목욕통과 서재를 설비하라고 주장한다.

18) 1920년대 후반 들어서면 여성들의 주택개량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 이들의 논의는 주로 부엌의 설비개량에 집중되는 것이었다. 동아일보, 1928년 1월 7일자. 안결례, 동아일보, 1935년 1월 1일자. 송금선, 동아일보, 1935년 1월 1일자. 俞丑卿, 동아일보, 1936년 1월 1일자. 孫貞奎, 동아일보, 1936년 1월 1일자 등의 기사 참조

19) 한반도의 주택개량운동의 전개에는 앞서 일본에서 벌어진 주택개량운동과 생활동맹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개선운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장 적합한 것을 본받아 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것을 주장한다.²¹⁾

김유방은 문화생활의 이상적 모델로 미국식 방갈로 주택을 제시한다. 방갈로가 서구의 소주택 중에서도 가장 자연미를 수용하기에 적당하고 처마가 넓어 조선주택과 유사하므로 방갈로식 주택을 기본으로 하여 실들을 융통성 있게 쓰면 큰 불편이 없으리라는 것이다.²²⁾ 김유방은 24평과 27평 규모의 주택을 이상주택의 예로 제시하는데, 평면을 보면 홀을 중심으로 거실과 침실이 있는 전형적인 콜로니얼양식의 주택으로 당시 일본의 도시 근교에서 유행하고 있던 방갈로식 주택과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a. 이상주택 1안 b. 이상주택 2안
그림 1. 김유방의 이상주택안
(우리가 選擇할 小住宅, 『開闢』 제34호, 1923. 4., 57-58쪽)

2. 1930년대 속복도형 주택개량안

1920년대의 주택개량논의가 주로 지식인 계층에 의해 주도되어진 것에 비해 1930년대에 접어들면 한국인 건축가들에 의한 구체적인 주택개량안이 등장한다.²³⁾ 金允基의 '유일한 휴양처 안락

홈은 어떤 곳에 세울까'²⁴⁾, 朴東鎭의 '우리 주택에 대하여'²⁵⁾, 洪胤植의 '주택지 선택개론'²⁶⁾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모두 주택지의 입지를 선택할 때 주거환경의 측면을 고려할 것, 주택의 건폐율을 제한하여 공지를 확보하고 정원을 들 것, 집중식 평면을 택할 것, 그리고 부엌과 변소·온돌의 설비를 개량할 것을 주장한다. 일반인들이 전개하였던 1920년대의 주택개량운동의 주장에 비하면 한결 전문가로서의 깊이가 더해진 내용들이다.

하지만 주택개량에 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전개한 한국인 건축가는 아무래도 박길룡이다. 박길룡은 우리나라 주거건물 배치 방식에는 '중정식'과 '집중식'이 있는 바 소규모의 주택에서는 집중식이 보다 합리적임을 주장한다. 집중식은 실과 실의 통행을 복도로 연결하고 공지의 여유가 있으므로 건물의 채광과 통풍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원의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그리고 그는 주택의 공간을 독립성을 가지면서 거주기능으로 사용되는 '주거부분'과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교통용이나 일하는 장소로 쓰이는 '종속부분'으로 구분한 후, 주거부분과 종속부분을 각각 5할 정도로 배분하고 주거부분은 남향·동향, 또는 남동향을 면하게 하고, 종속부분은 북향·서향 또는 서북향을 향하도록 하며 남측에 정원을 두어 여기에 주거부분이 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²⁸⁾

박길룡의 주택개량안을 보면 현관을 도입한 집중식 평면에 속복도를 이용하여 주거영역을 구

20) 金惟邦, 文化生活과 住宅, 『開闢』 제32호, 1923. 2., 53쪽. 그는 전통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온돌을 끄는 한편 가장 큰 단점으로는 주방을 든다.
21) 같은 글, 57쪽.
22) 金惟邦, 우리가 選擇할 小住宅, 『開闢』 제34호, 1923. 4., 60-61쪽
23) 여기에는 1930년대가 1919년 박길룡의 경성고공 졸업을 필

두로 배출된 한국인 건축가들이 어느 정도 실무경험을 축적한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이 때부터 한국인 자본가 계층이 이들에게 주택을 의뢰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송을, 한국인 건축가의 형성과 후원자,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제3집, 1993. 6. 참조
24) 金允基, 동아일보, 1930년 9월 27일~30일.
25) 東亞日報, 1931년 3월 13일부터 14회 연재
26) 洪胤植, 住宅地選擇概論, 『朝光』, 1937. 6. 372-379쪽
27) 朴吉龍, 在來式 住家改善에 대하여 중 1.택지면적과 건물면적 (최순애, 같은 논문, 112-114쪽)
28) 朴吉龍, 在來式 住家改善에 대하여 중 2.각 실의 배정, 3. 각 실의 방면에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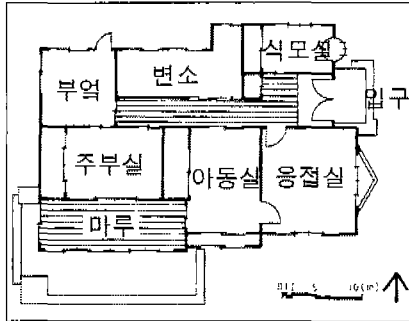


그림 2. 박길룡의 주택개량안
(1936년 6월호『신동아』'住宅改善一案')

분한 기능적 평면에 부엌과 변소가 실내화되고 아동실과 주부실이 따로 등장하는 등 근대적 주의식을 보여주고 있어 그의 주택개량에 대한 주장이 그대로 구현된 평면임을 알 수 있다.²⁹⁾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거실이나 식당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응접실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어 접객위주의 주의식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일제강점기 문화주택의 평면형

1. 1920년대의 방갈로식 양식 주택

1920년대 한국주택의 실물을 볼 수 있는 자료는 드물다. 따라서 구체적인 평면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유방이 주장한 방갈로식 주택개량안이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유학파를 중심으로 꽤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의 笹慶一의 1920년대 초반 문화주택의 유행에 관한 언급이나³⁰⁾ 박길룡의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박길룡의 글에서 나타나는 주택의 평면을 유추해 보면 1920년대의 문화주택이란 김유방이 주장하였던 방갈로식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C君은 귀국한 길로 주택을 개선하니 어찌

29) 임창복, 일제시대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주거근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1.10. 144-145쪽 참조
30) 笹慶一, 같은 글, 103-112쪽

느니 하고 洋館을 지었는데 …… 벽이 연와조, 지붕은 인조슬레이트 기타 부분은 목조이고 外樣은 독일 세제손에 가까운 듯하나 아무 통일이 없다. 현관을 지나서 중앙이 홀이 되고 그 홀 안의 階上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그 홀에서 바른 편 방이 가족실, 이 방으로 연속하여 식당, 주방, 변소가 있다. 階上은 침실이 2개 있고 서재와 욕실이 있다. 각 방의 난방은 모두 난로를 피우게 되었고 가구 등도 전부 양식이니 대체로 조선에는 조금도 없는 집이다.³¹⁾

지금부터 13년(1924년)정도 전에 일이지만 필자의 선배인 Y씨가 …… 귀국 후 빨리 자신의 생활부터 개선할 의미로 자신의 집을 세웠다. 이른바 개량주택인 것은 건평 50평의 2층 煉瓦造로 훌륭한 洋館인데 칸잡이는 아래층에 居間 식당 주방 서재 등이 있고 위층에는 침실 3실에 욕실 변소 화장실로 되어 있으며 물론 욕실 변소는 순양식이며 외국잡지의 그림에서 보는 그대로이다.³²⁾

방갈로식 주택은 大正문화주의와 서구화 열기 속에서 일본에서도 유행하고 있었다. 1920년대 초 급속히 팽창하고 있던 도시 주변으로 전차가 연장되자 일본 도시의 교외 전원에서 미국식의 전원주택이 유행한 것이다. 이 주택들은 스페인풍, 콜로니얼양식, 세제선양식 등을 일본의 것과 절충한 외관을 지니며 거실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방 배치에 서구풍의 인테리어를 특징으로 하는 주택들이었다.³³⁾ 일본에서의 유행이 직수입될 정도로 당시 서구화의 열기는 높았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그랬고 한반도에서도 방갈로식 문화주택은 잠시의 유행으로 그치는 것이었다.

31) 朴吉龍, 流行性的의 所謂 文化住宅, (최순애, 같은 논문, 93-94쪽에서 재인용)
32) 朴吉龍, 朝鮮式住宅改善의問題, 『朝鮮と建築』, 제16집 8호, 24쪽
33) 扇田新外 9人, 같은 책, 36-37쪽

지은 당시에 문화설비 생활혁신에 분주하더니 어찌한 셈인지 洋館이 불편하다고 그 洋館 옆에 순 조선식으로 집 한 채를 지어 놓고 …… 洋館은 별로 쓰지 않고 혹 손님이 있으면 응접실로 쓴다고 한다.³⁴⁾

2년 정도 지나서 Y씨는 애써 지은 양관은 빈집으로 두고 그 옆에 조선재래식의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³⁵⁾

일본인들도 이러한 서구식 문화주택의 유행에는 비판적이었다.³⁶⁾ 1931년 조선저축은행 取頭였던 森悟一이 당시의 문화주택에 대하여 “물론 조선인 측에 있어 일약 전통의 껍질을 벗었지만 각종의 문화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재래 조선식 주택을 기준으로 신식 조선식 주택의 창안설계가 바람직하다.”³⁷⁾ 라고 하고 있을 정도였다.

2. 1930년대 속복도형 한양일절층식 주택

『朝鮮と建築』에는 1929년에서 1940년에 걸쳐 모두 11채의 한국인 주택 평면이 소개되어 있다. 한국인 주택으로서 『朝鮮と建築』에 실릴 정도이면 당시의 주택경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 없을 것이니 이들 주택을 통하여 1930년대 문화주택의 모습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독주택이란 건축주 개인의 취향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고로 이들 주택도 독립된 식당과 아동실이 있는 것에서부터 자시끼와 즈쯔끼마의 일본식 구성을 보이는 것까지 다양하지만, 서구식 외관과 집중식 평면에 속복도를 이용한 실구성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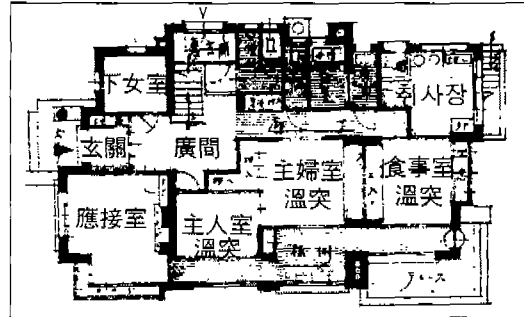


그림 3. 尹씨 주택 평면도
(『朝鮮と建築』제18집3호, 72쪽, 1938년 박길룡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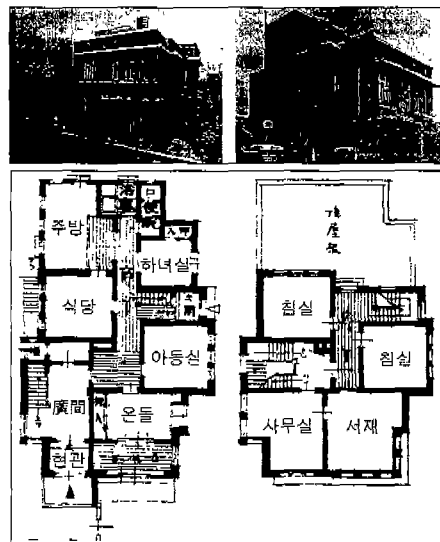


그림 4. 金明鎭씨 주택의 입면과 평면도
(『朝鮮と建築』제11집7호, 30쪽, 1931년 박길룡 설계)

박길룡은 1930년대 한국주택을 개선하려는 흐름 중 “구조·재료·樣式을 洋式으로 하고 방의 배치를 개량해서 실내를 조선식으로, 즉 온돌·창호를 조선식 재래 온돌방 기본으로 만드는 것”, “요약하면 서양식의 것에 조선의 것을 취입시킨 것”³⁸⁾을 문화식 혹은 절충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그의 주택개량안과 실물주택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한데, 1930년대 문화주

34) 朴吉龍, 流行性的 所謂 文化住宅

35) 朴吉龍, 朝鮮式住宅改善の問題, 24쪽

36) 일본인들 역시 서양식 주택을 동경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서양식 주택에 불편해 하였다. 笹慶一, 같은 글, 105쪽 참조

37) 森悟一, 朝鮮家屋の改善に就きて, 『朝鮮と建築』, 제10집 5호, 35쪽

38) 朴吉龍, 朝鮮式住宅改善の問題, 25쪽

택이 한양절충식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문화주택 비교

항 목	1920년대 문화주택	1930년대 문화주택
구조/재료	조적조	조적조 / R.C.조
외 관	방갈로식	근대식
평 면	콜로니얼 양식	속복도형
실내외장	서양식	한국식
난방방식	난로 / 페치카	온돌
현 관	없음	있음
거 실	있음	없음
응 접 실	없음	있음
주택양식	洋式	한양일절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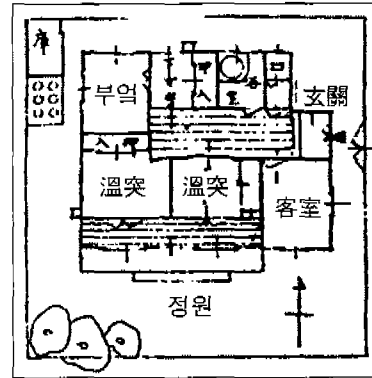


그림 5. 1940년대 문화주택 평면 예
(박길룡, 朝鮮住宅雜感, 『朝鮮と建築』 제20집4호, 16쪽)

그림 5는 박길룡이 1940년대의 주택경향을 언급하면서 문화주택의 예로 든 평면인데,³⁹⁾ 역시 남쪽에 정원이 있는 집중식의 평면에 동으로 난 현관을 들어서면 남쪽에 객실이 있고 속복도를 중심으로 방들이 구성된 평면으로 1930년대의 주택개량이나 실물주택과 평면적 특징을 같이 하고 있어 1940년대의 문화주택이 193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이후의 문화주택이 방갈로식의 洋式 주택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洋式은 문화주택의 상징이었다. 1937년 『朝光』지에 실린 ‘그 주택, 그 정원’이라는 특집⁴⁰⁾을 보면 한양절충에 현관과 속복도가 있고 응접실이나 서재를 갖춘 구성이면 문화식이라 부르고 있지만⁴¹⁾ 조선식 기와집에 대청을 유리창으로 막고 소파를 들여 서재나 응접실로 사용하는 집은 “문화식은 아니나”⁴²⁾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주택의 구조와 외관이 양식인 것이 문화주택의 일차적 요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3. 속복도형 일식주택의 영향

1930년대 한국인의 주택에서 방갈로식 주택은 찾아보기 어렵다.⁴³⁾ 이것은 방갈로식 주택이 우리의 생활과 맞지 않기도 하였지만 한국인 건축가들이 “우리의 신문화 문화주택은 洋式 그것이 나 재래 전형 그것은 물론 양식과의 혼성체가 아니다”⁴⁴⁾는 자각 아래 “재래형식을 토대로 하여 과학적인 양식의 구축법을 구성수단으로 하는”⁴⁵⁾ 새로운 문화주택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결과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과학적 양식의 구축법이라든가 박길룡이 말하는 ‘방의 배치를 개량한다’는 것은 일본 주택이 서구 주택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소위 속복도형 화양절충식 평면의 채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의 주택개량이나 실물주택들을 보면 집중식 평면과 속복도의 이용한 주거영역의 기능적 구분, 그리고 현관과 응접실의 등장 등이 공통되는 특징인데, 이것은 당시 일본에서 도시중산층의 주택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던 화양절충식 속복도형의 평면구성방법이었다.⁴⁶⁾

39) 박길룡, 朝鮮住宅雜感, 『朝鮮と建築』, 제20집 4호, 16쪽

40) 『朝光』, 1937. 9., 78-83쪽

41) 같은 책, 한글학자 崔鉉倍의 주택 소개 기사

42) 같은 책, 한글학자 李克魯의 주택 소개 기사

43) 『朝鮮と建築』에 수록되어 있는 124채의 주택평면 중 1920년대 초의 계획안 몇 개를 제외하고는 방갈로식 주택을 보기 어렵다.

44) 박길룡, 文化式 別莊, 동아일보, 1932.7. (최순애, 같은 논문, 99-100쪽)

45) 박길룡, 流行性的 所謂 文化住宅

46) 속복도가 주택의 중앙에서 동선을 처리하는 평면형을 일

화양절충식 속복도형은 한 방으로 가려면 다른 방을 거쳐야만 하는 전통적인 일본 주택의 동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관과 속복도가 주택의 중앙에서 동선을 처리하는 평면 유형으로 서구식 외관과 재료, 구법에 입식가구가 놓인 양식의 응접실이 현관 근처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속복도형 화양절충식 일본주택은 당시 도시중산층의 계몽주의, 문화주의 사조 아래 탄생하여 가족 위주의 주의식과 기능적 합리성을 구현한 주택으로 평가받았고 그 결과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의 도시중산층주택은 속복도형 일색이 된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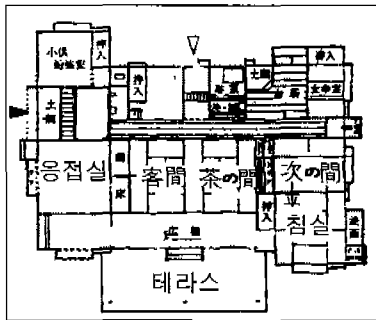


그림 6. 일본의 속복도형 화양절충식 주택 평면 예

(木村徳國, 明治時代の住宅改良と中廊下形住宅様式の成立,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21, 1959. 5. 5쪽)

1920년대의 무조건적인 서구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희석되면서 한국인 건축가들은 일본의 근대주택을 모범으로 이를 다시 우리의 것과 절충한 문화주택을 제시하고 있었다. 笹慶一이 한국인의 주택이 일본인의

본에서는 中廊下型이라고 부르는데 평지유신 이후 1910년대에 서양주택의 영향으로 성립된 일본근대도시단독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다. 中廊下型의 주택은 일제강점기 관건축조직을 통하여 관사로서 한반도에 광범위하게 이식되고 있었고 박길룡은 경성고공 졸업 후 일식 관사를 설계하고 있던 총독부 관방 회계과에서 근무하였다. 木村徳國, 大正から昭和へ, 太田博太郎 編, 같은 책, 146쪽과 木村徳國, 昭和初期の中廊下形・居間中心形住宅様式の展開と融合,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20, 1958. 12. 참조

47) 木村徳國, 中廊下形・居間中心形住宅様式の史的位,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21, 1959. 5. 참조

주택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단지 조선주택은 온돌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응접실을 설비하는…… 것을 보통으로 한다”⁴⁸⁾라고 말하는 것은 것도 1930년대 이후 한국인의 문화주택이 속복도형 일식주택을 기본으로 하여 한양일절충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문헌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문화주택의 평면형과 그것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 1920년대 방갈로식 서구주택을 가리키던 문화주택의 의미가 1930년대가 되면 서구식 구조와 외관에 일본의 화양절충식 속복도형을 기본 평면형으로 하되 전통적인 실내 환경과 온돌을 가진 한양일절충식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1920년대 문화주택의 모델이 일본에서 유행하던 방갈로식 서구주택이었고 1930년대 문화주택의 모델이 일본식 근대주택인 속복도형 화양절충식주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서구사회에서의 근대화란 모두 국제적인 문화이식을 근본 조건으로 한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문화주택이 비록 일본의 주택동향으로부터 영향 받고 있었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된 주택의 하나에 영향 받은 것일 뿐, 우리가 자생적 근대화의 길을 걸었더라면 우리 주택이 서구주택을 경험하면서 변화했을 모습이기도 하다. 오히려 식민지의 질곡 속에서도 한국의 주택이 초기 외래주택의 모방에서 외래주택의 장점을 수용하는 절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문화주택의 평면형이 가지는 의미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동시기의 일본인조차 당시 한국 주택의 흐름이 “실질적인 현대생활에 뿌리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외관과 온돌

48) 笹慶一, 같은 글, 112쪽

의 장점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주택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⁴⁹⁾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문화주택을 지을 수 있었던 계층은 소수의 상류계층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주택양식은 쉬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지니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고급 주택, 상류계층의 주택을 모방하려는 속성도 가진다. 한양일절층식 주택으로 정착된 1930년대 이후의 문화주택이 한국 주택 일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는 따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開闢』
2. 東亞日報
3. 『別乾昆』
4. 『朝光』
5. 朝鮮總督府, 『朝鮮』
6.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7. 金晶我, 日帝時代 住宅改良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碩士論文, 1992
8. 김진송, 서울에 만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9. 임창복, 일제시대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주거 근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1. 10.
10. 崔珣愛, 朴吉龍의 生涯와 建築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論文, 1981
11. 都市住居研究會, 『異文化の葛藤と同化-韓國における「日式住宅」』, 建築資料研究社, 1996
12. 木村德國, 明治時代の住宅改良と中廊下形住宅様式の成立, 『北大工學部研究報告』 No. 21, 1959. 5.
13. 扇田新 外 9人, 『新建築學大系-7, 住居論』, 彰國社, 1987.
14. 太田博太郎 編, 『住宅近代史』, 雄山閣, 1969

49) 笹慶一, 같은 글, 111-112쪽